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4 하천경관의 계획과정

오민근 |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ufo1009@paran.com)

1.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호부터는 하천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단순히, 하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지역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천을 생태적인 경관으로 가꿔나가는 것과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가꿔나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모든 하천이 하나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극적인 '생태하천'의 상(像)이 있어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조

성해야 한다던가, 해당 하천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종다양성이 풍부했던 시절을 기준으로 삼아 조성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하천은 생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던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하천경관을 다루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국내외 하천경관가이드라인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목표와 계획과 설계수법은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왜 그러한 내용의 하천경관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필자가 본 연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경관의 형성, 보전, 활용에 대한 기준은 '지역적'인 관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마철이 돌아왔다. 언론에서는 장마와 흉수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농지가 물에 잠기거나, 도로가 떠내려가거나 하는 소식을 매년 요즘처럼 똑같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언제까지나 그런 뉴스를 접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거나 나아졌는지, 그 결과는 왜 쉽게 알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도 이젠 무디어졌다 정도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이건 혹은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천과 하천경관에 대해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으느냐가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야 지역적인 - 지역 고유의, 지역다운 - 하천 풍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천경관 형성을 위해 어떠한 원칙과 목적, 수단과 과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경관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하천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우선 1991년도 일본 동경도에서 만든 하천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경도 경관계획, 스미다강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천경관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경관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지역활성화와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천경관 규모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 동경도 하천경관가이드라인

가. 개요

동경도 하천경관가이드라인은 1991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도시하천에서 수변환경 향상에 관한 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하천경관에 관한 기술적인 의사사항에 대해 기술함과 함께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관의 시점과 함께 사람과 하천과의 관계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작성된 이 가이드라인은 레크레이션 및 자연과의 조화, 휴식의 공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하천의 환경정비와 환경기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하기 위하여 쉴 수 있는 수변 정비와 함께 하천정화시설 설치 및 환경용수 도입 등으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하천환경의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간환경'과 '수(水)환경'으로 크게 구분되는 하천환경 중에서, 하천의 '공간환경'은 첫째, 경관, 둘째, 활동, 셋째, 자연환경, 넷째, 역사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환경'의 요소들은 각각 중요하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이 되는 요소여서, 특히 동경의 하천에서는 그 창출 및 보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서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도시하천경관에 관한 기초적 지식, 동경의 하천경관 특징과 정비 이미지,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 수법, 경관의 예측평가 및 경관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경의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히고, 그 특징을 정리하여 하천경관을 착안하는 기본적 관점을 나타냄
- 둘째, 하천변의 토지이용 및 하천공간의 현상을 바탕으로, 경관정비이미지를 나타냄
- 셋째, 사례사진을 기초로, 하천구조물 등의 경관설계를 행할 때의 고려사항을 나타냄
- 넷째, 경관의 예측평가 수법을 나타냄
- 다섯째, 양호한 하천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려방안 및 하천변 건물 등에 대한 하천경관으로의 유도책을 나타냄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동경도내 44개 하천의 경관현황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당시 시점에서의 하천경관정비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에 해당한다. 하천경관의 조사, 계획, 설계 등을 실시할 때는 각 하천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운용하

는 것으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각 장에서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경도내 하천을 포함하여 사방해안(砂防海岸)사업의 시설설계 등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 도시하천경관의 기본설계와 가이드라인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동경도 하천경관가이드라인의 전체를 다를 수 없으므로, 가장 관련이 깊은 경관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동경도하천경관가이드라인 주요 목차를 보면 제4장이 '도시하천경관의 기본설계'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에 발간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미 80년대에 정점에 달해 있던 하천경관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동경을 방문할 때 보게 되는 하천 풍경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년전 당시의 하천경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설계의 원칙'이다. 이를 다시

'토목구조물로서의 설계원칙'과 '도시하천 경관설계의 요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도시하천의 경관설계를 위한 원칙과 그 요소를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가 한창 신도시 건설 등 개발위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천에 대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하천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하천들이 적어도 10년 후에 어떠한 하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일본의 하천과 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기본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기본설계의 절차, 경관조사 수법, 경관가이드플랜, 경관기본설계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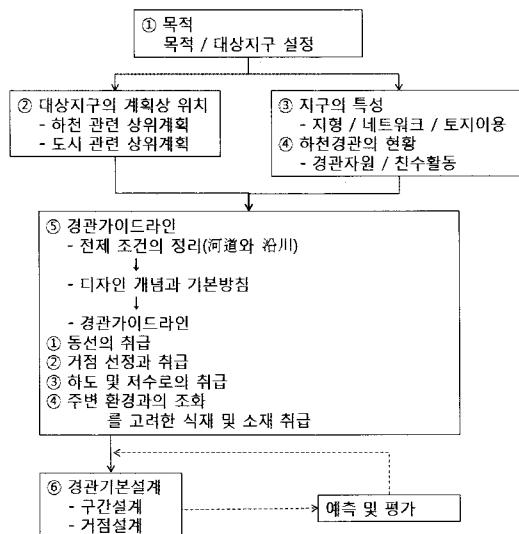
기본설계의 절차에서는 기본설계의 목적, 절차, 기본설계의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기본설계의 목적은, 치수계획과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 등 하천의 향후 모습에 관한 이념 및 정비방침을 바탕으로, 하나의 하천으로서의 일관성, 천변지역과의 일체성을 가지며, 총체로써 양호한 하천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1> 토목구조물로서의 설계원칙과 도시하천의 경관설계 요점

원칙	내용	경관설계 요점
1. 풍격성	하천은 그 장소성에 따라 '격'을 갖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해당 하천은 그 지역에서의 풍격을 갖도록 해야 함	하천다움과 지역성 -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만든다 - 자연을 끌어들인다 - 도시하천의 매력을 끌어낸다 - 마을의 하나의 요소로써 하천을 생각한다
2. 세련미	하천 구조물의 디자인은 치수 및 이수와 같은 기능의 충족뿐만 아니라, 친수성(親水性)을 강조하는 장식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	구조물이 보이는 방법 - 누가 보는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를 생각한다 - 하천경관의 규모감에 주의한다 - 구도를 갖춘다 - 인공적 요소를 세련되게 한다
3. 배경	물과 수변이 갖는 매력과 함께, 그 배후에 있는 가로수, 주택, 산 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하나의 무대장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사람의 활동을 살린다 - 사람의 활동집적이 일어나는 중요성을 살린다 - 도시하천이라는 수변공간의 형태를 의식한다
4. 일관성	하천의 호안 및 방죽 등의 하천구조물만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되, 교량, 수변 건물, 식재(植栽), 천변길 등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맥락(context)을 갖도록 해야 함	요소가 보이는 방법 - 디자인 개념의 일관성을 갖는다 - 요소를 연출한다 - 소재를 음미한다
5. 다양성	수변공간은 하천, 교량, 수변 건물 등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요소로 형성되므로,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관리주체가 수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재료, 조형, 미감 등에 대해 함께 고려하여야 함	경관의 연출 - 경관의 연출을 도모한다 - 수십년을 생각한다 - 점진적인 정비방안을 생각한다.

* 출처 : 동경도하천경관가이드라인(1991), pp.58-61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도시하천경관의 기본설계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동경도하천경관가이드라인(1991), p.62의 그림 4.22 필자 재작성

그리고, 기본설계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대상하천구간의 주변 폭을 대략 100m로 설정하여 주요대상지구로 정하고 있다.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지구 주변에서 도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구를 주변대상지구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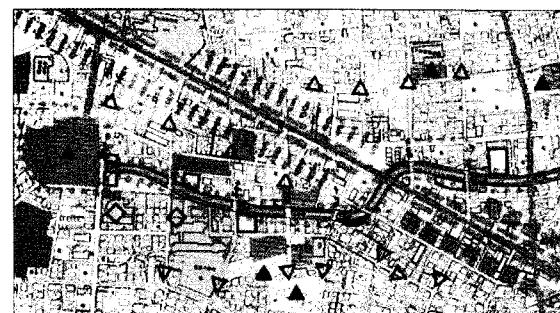
경관조사 수법에 관해서는 경관조사의 필요성, 항목과 수법, 표현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경관정비를 위해서는 전제로 해야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하천공간에 기대되는 장래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천정비, 도시정비라는 시점에서 경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조사항목과 수법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과 도시의 현황과 장래를 기준자료 등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대상지구가 도시와 지역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가졌는지 그 위치를 밝힌다. 다음으로는 주변대상지구를 대상으로 지형, 네트워크, 토지이용 현상과 장래 등 하천을 둘러싼 지구 특성을 정리하고, 지역에서 하천의 환경특성 및 사람들과 하천과의 관계를 밝힌다. 이와 같은 주변대상지구의 상황을 바탕으로 경관자원, 친수활동을 기준 자료 및 현지조사에 의해 파악하여 하천경관의 현황을 밝힌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및 설계를 할 때에는 하도(河道) 및 연천(沿川)의 전제조건을 정리한다.

표현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표현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Kevin Lynch가 제창한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인 가장자리(edge), 통로(path), 지역(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를 표현방법의 예로 들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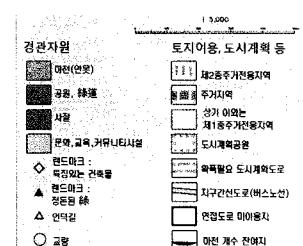
妙正寺주변 지구의 경관현황

*동경도하천경관가이드라인(1991), p.64의 그림 4.2.4



기본설계의 대상으로 하는 범위(妙正寺의 예)

*동경도하천경관가이드라인(1991), p.63의 그림 4.2.3 필자 수정



세 번째로는, '경관가이드라인'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전 체조건의 정리, 디자인 개념의 설정, 기본방침 설정, 가이드 플랜 작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체조건의 정리란, 대략 10년 정도 후를 목표로써 정비해야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관가이드플랜은, 구체적으로 상위계획, 하천개수계획의 목표년차를 감안하여 정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경관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하도의 형상 및 식재 등의 위치 및 연천(沿川)의 장래동향을 적확하게 파악하여 가이드플랜 작성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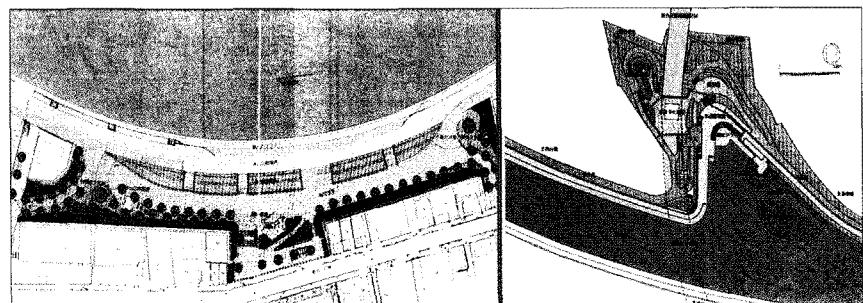
경관형성 과정은 계획에서 설계, 사업실시, 유지관리에 이르는 많은 단계를 거칠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자를 비롯하여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절차 및 관계자에 의해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입각하여 큰 방향을 나타내는 디자인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본방침은 디자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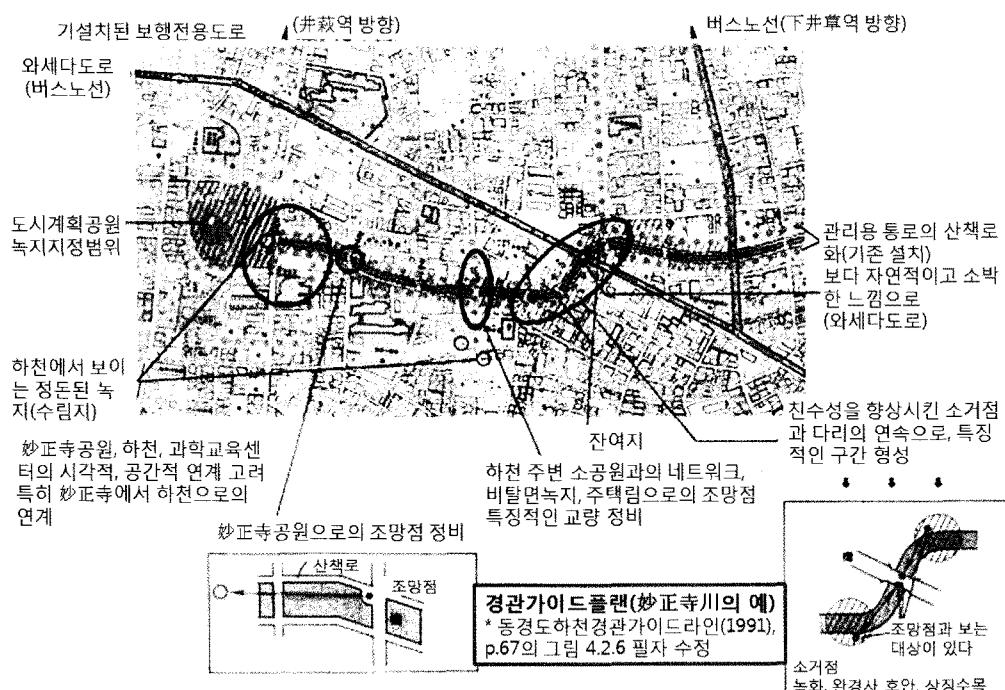
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지향해야만 하는 방향을 말한다. 즉, 계획 및 설계작업 중간중간에 기본방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하천공간의 정비', '하천수질 개선', '하천수량 확보', '생태계 예의 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관가이드플랜을 작성하게 되는데, 하천관리구역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인접한 택지도 포함한 '주요대상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경관가이드플랜은 동선, 거점 선정(시점장과 대상), 하도 및 저수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식재 및 소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네 번째로는 '경관기본설계'에 관한 것으로, 연속하는 하천



기본계획도 예시(왼쪽: 小豆沢지구, 오른쪽: 舟渡지구)



공간을 다루는 구간설계, 그 중에서 특색을 갖게 하는 거점을 다루는 거점설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 설계 시에는 양자를 일체적으로 행하게 되며, 하도 및 관리용 통로, 분류점 및 합류점 등의 하천 요소에 대해 설계하게 된다.

참고 : 동경도하천경관아이드라인의 주요 목차

서장 가이드라인의 개요

제1장 동경의 하천 개요

- 1.1 동경의 하천 : 지세와 수계, 하천의 관리상황
- 1.2 동경의 하천의 현상과 장래 : 유역의 변모, 동경의 수해, 하천 개수(改修)의 개요, 동경 하천환경의 현황, 동경 하천에의 요청, 동경 하천의 앞으로의 모습

제2장 하천환경의 정비

- 2.1 하천환경정비의 현상 :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환경정비에 관련한 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체계
- 2.2 도시 속에서의 하천경관의 바람직한 모습 - 도시미 가이드라인

제3장 동경의 하천경관

- 3.1 하천의 경관 : 경관이란, 하천경관의 구도
- 3.2 도시하천경관의 성립 : 도시하천의 경관구성요소, 도시하천을 보는 방법, 도시하천과 사람과의 관계, 도시하천경관의 특징
- 3.3 동경의 하천경관 유형 : 도시경관의 변천, 하천경관의 유형분류, 유형별 특징
- 3.4 하천경관정비이미지 : 기본이념, 동경의 하천경관 정비 이미지

제4장 도시하천경관의 기본설계

- 4.1 설계의 원칙 : 토목구조물로서의 설계원칙, 도시하천의 경관 설계 요점
- 4.2 기본설계 : 기본설계의 절차, 경관조사 수법, 경관가이드플랜, 경관기본설계

제5장 구조물 등의 상세설계

- 5.1 구조물 등의 디자인 : 대상 구조물, 디자인 고려방안
- 5.2 하도(河道) 내의 하천관리시설 : 호안 및 제방, 낙차공 및 방죽, 수문(水門), 분수로(分水路), 하상(河床 : 저수로부, 둔치), 식재
- 5.3 기타 하천관리시설 : 포장, 가드레일, 휴게시설, 조명시설, 사인, 기념물
- 5.4 경관의 연출 : 물의 표정, 시각의 변화와 보이는 방법, 야경연출, 간민(干満)의 변화, 치경(借景), 첨경(添景)
- 5.5 경관의 예측 및 평가 : 시점장(視點場)의 검토, 예측도의 작성, 경관의 평가

제6장 하천경관의 관리

- 6.1 제외지(境外地)의 경관관리 : 하수토구(下水吐口), 횡적 구조물, 고가구조물
- 6.2 제내지(境内地)의 경관관리 : 제내지의 경관관리 수법, 하천의 매력을 살린 천변(川邊) 유도, 천변 건물의 협력,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 및 유도

2.2 동경도 경관계획에서의 하천경관 관련 내용

동경도 경관계획은 2006년 1월에 책정되어 2011년 4월에 개정되었다. 이 경관계획의 부제로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동경의 재생'이라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경관기본축과 경관형성특별지구를 정하고 있는데, 경관기본축은 바다와 접해 있는 임해부, 스미다강, 간다강, 타마강 상수, 国分寺 벼랑선, 구릉지로 정하고 있고, 경관형성특별지구는 문화재정원, 수변, 小笠原 3개 지구를 정하고 있다. 동경도하천경관아이드라인에서 다루었던 묘정사천은 바로 간다강의 지류에 해당함을 아래 그림으로 알 수 있다.

양호한 경관형성 방침 중 물과 관련한 것으로는 '수변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물과 緑이 조화된 윤택한 주택지 형성'을 들고 있다.

동경 도심을 가로지르는 간다강의 경관형성방침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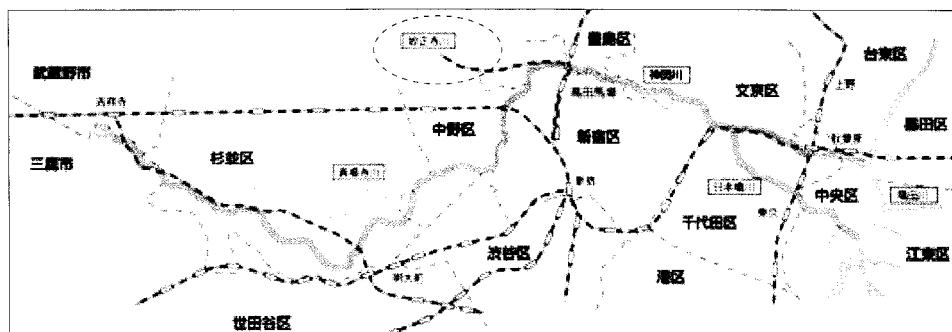
첫째, 물과 緑의 일체감이 연속하여 느껴지는 하천경관의 형성

둘째, 緑이 풍부한 하천변 보행자 공간 창출

셋째, 역사적, 문화적 경관 자원을 살린 경관 형성

넷째, 간다강과 주변 지역이 조화한 마을경관 형성

간다강 경관기본축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법 및 동경도 경관조례에 기초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이 되는 종류, 규모, 경관형성기준을 정하고 있다. 간다강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개발행위에 대해 행위 제한 사항을 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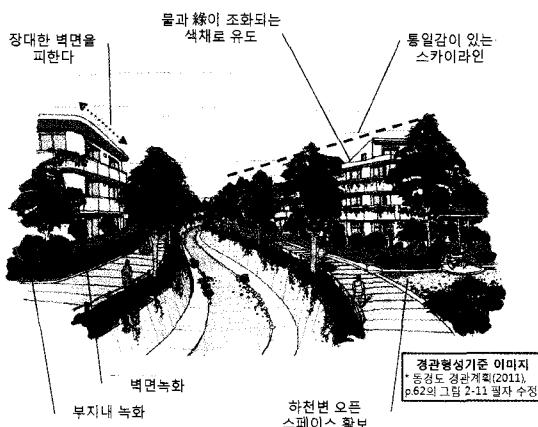


경관기본축 중 하나인 간다강과 묘정사천(妙正寺川)

* 출처: 동경도경관계획(2011), p.58의 그림 필자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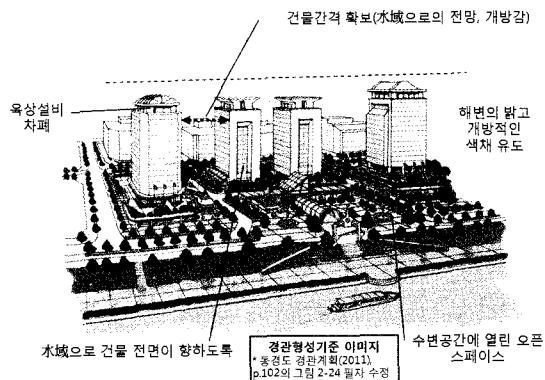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해서는, 신고행위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혹은 이전, 외관을 변경하게 되는 수선 혹은 모양교체 또는 색채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규모로는 건축물 높이가 15m 이상 혹은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형성기준은 건축물의 배치, 높이 및 규모, 형태 및 의장과 색채, 공개공지 및 외부구조물과 녹화 등에 대해서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형성기준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경관형성기준은 대체로 일반인과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행정의 서비스정신 미흡과 대비된다.



그리고, 경관계획에서는 '수변경관형성특별지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풍부한 수변공간을 갖는 임해(臨海)경관기본축 및 스미다강 경관기본축의 구역 내에서, 새로이 중점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수변경관형성특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시책 등과 연계하여 수변공간의 매력향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천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과 경관형성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들의 하천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하천으로의 조망을 가리는 판상형 아파트가 대부분 들어차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하천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주요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스미다 중앙지역 경관가이드라인과 北十間川 경관형성

스미다강이 지나는 스미다구에서는 새로운 타워 건설을 계기로 선진적인 도시공간, 北十間川 양쪽 호안의 윤택한 옥외공간, 또한 주변 시가지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풍경 창출을 목적으로 신타워 건설 주변 지구인 押上·業平橋 주변 지구를 대상으로 경관형성기준이 되는 '스미다 중앙지역 경관가이드라인'을 2007년 12월에 책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같은 해에 책정된 '스미다구 경관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총 6쪽 분량으로 되어 있다.



작성 배경으로는 스미다강의 지류인 北十間川은 길이 약 3.24km로, 2012년에 개업하는 동경 Sky Tree 건설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대규모 토지이용전환 등에 따른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경 Sky Tree 개업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지역의 매력향상과 함께 지역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해당 지역 전체의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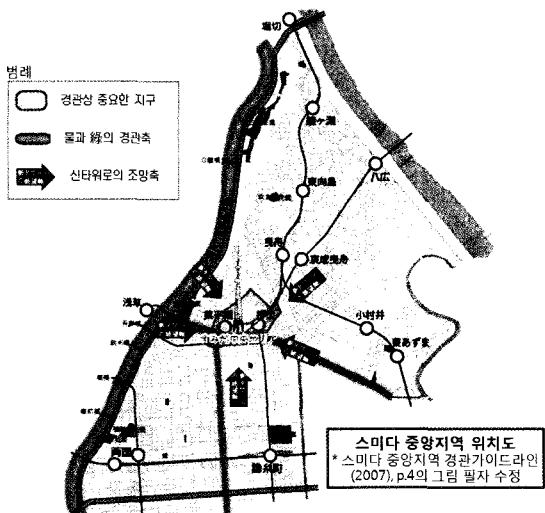
외공간 및 풍경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성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하고 있다.

- 첫째, 拝上역·業平橋역 주변지구(스미다 중앙지역)의 마을의 장래경관을 나타낼 것
- 둘째, 장래경관을 실현하기 위한 경관형성 방침, 공동 규칙을 공유할 것
- 셋째, 스미다구 주민, 사업자, 행정 등의 협동에 의해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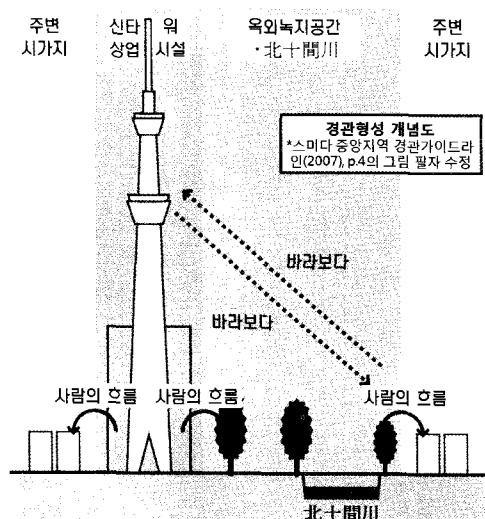
하천경관형성과 관련이 있는 北十間川은 신타워 건설부지에 인접하고 있고, 친수성(親水性)이 있는 수변공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하천이다. 이러한 北十間川의 경관특성으로 '신타워 지역에 인접한 수변공간', '친수데크 등의 설치가 가능한 수위저하정비하천'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과제로 '하천변 호안의 친수성 향상과 수질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는, 경관상 중요한 지구를 설정하고, 물과 緑의 경관축을 설정하며, 신타워로의 조망축을 설정하고, 신타워를 중심으로 하천과 주변 지역의 경관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방침에 기초하여, 北十間川과 타워를 중심으로 경관형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그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개념도는 신타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北十間川을 축으로 한 오픈 스페이스에서 옥외로 유도하여, 주변 시가지까지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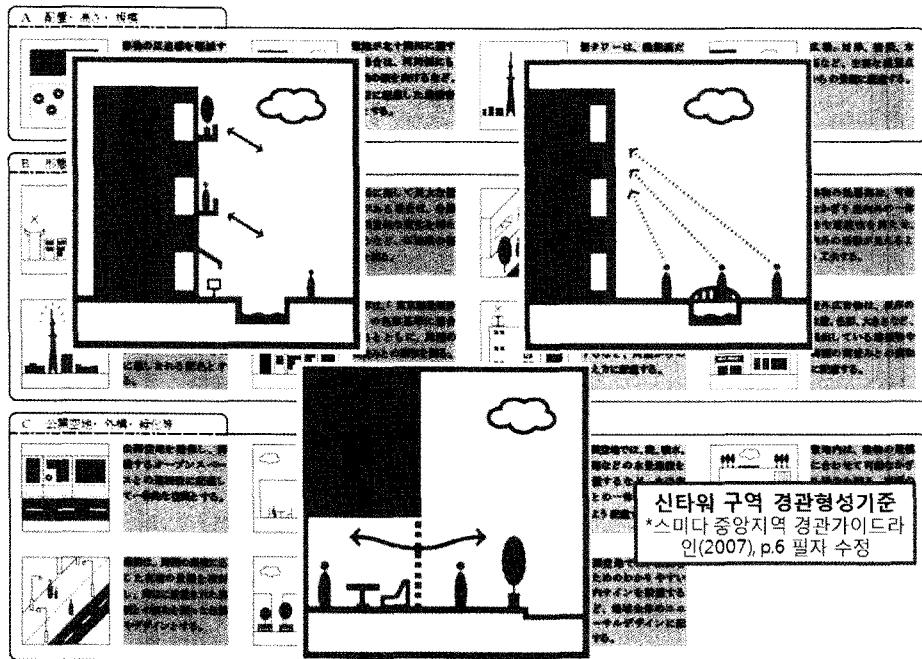
타워의 현대적 디자인에 대해 발끝의 풍부한 물과 緑, 그리고 주변 시가지의 역사의 향기가 느껴지는 공간 등과의 대비로 보는 즐거움을 일으키며, 신타워로의 조망을 의식한 옥외 공간을 각 장소에 배치하고 타워로부터의 조망을 의식한 경관의 형성 및 '타워가 있는 거리'로서의 일체감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그랜드 디자인에서 구역(zone) 구분을 바탕으로, 스미다 중앙 지역을 4개의 구역(번화함의 구역, 신타워 구역, 물과 緑의 구역, 기능재생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제 및 특성에 입각한 방침을 정한 것이 '구역별 경관형성방침'이다. 특히 '신타워구역'에 대해 새로운 경관형성의 상징으로써 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北十間川이 있는 '물과 緑의 구역'에서는 경관형성 주제로 '풍부한 물과 緑에 친숙해지는 하천변 상점가'로 정하고 있다. 경관형성방침으로는 맞은 편 호안, 교량, 수면 등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에 배려한 가로, 北十間川 양안의 건물과 공공 공간으로 구성된 일체감 있는 오픈 스페이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쉴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행해지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관형성기준의 방향성으로는, 수변 상점가로써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한 스카이라인 및 일체감이 있는 상점가 전면(facade) 형성을 유도하고, 저층부에 상점 등이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하천변에 변화한 공간을 창출하며, 北十間川

6. 新タワーゾーンの景観形成基準



연안(沿岸)에 정비되는 친수공간과 일체된 옥외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타워 구역의 경관형성기준을 ‘배치·높이·규모 / 형태·의장·색채 / 공개공지·외부구조·녹화’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기준을 다음 그림과 같이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北十間川과 관련한 경관형성기준의 예시 3가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나오면서

이상과 같이, 일본 동경도의 하천경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경관계획의 하천경관 부문, 실제 소규모의 하천경관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경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화 혹은 시가화 지역이 적은 중소도시의 하천은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외에도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관법과 경

관계회, 경관조례 등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면의 한계상 정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천경관’은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용어와 관련한 하천 관련 법률과 경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관련 법률이 크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경관의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작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결국 그 하천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개성적인 하천풍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천경관은 토목과 생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풍경’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소위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역사업이자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아직은 이렇다 할 하천경관형성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는, 단순히 하천변에 체육공원이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다른 선진사례에서 어떻게 하천경관을 형성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도시화 비율이 적은 지방에서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형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